



21세기 원전 건설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대림산업(주)

21 세기를 시작하는 2001년의 새해가 밝았다. 지난 연초에 우리 사회를 가슴 부풀게 했던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꿈이 올 하반기부터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급기야는 지난 1997년의 IMF 위기가 끝남이 아니라 오늘에까지 연장선상에 놓여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같은 경제 상황이 올해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새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고, 건설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많은 업체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대림은 이러한 대외적인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임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구조 조정과 경영 내실화에 매진해온 결과 작금의 위기 상황에 오히려 의연한 건설업계의 초일류 모범 기업이 되고 있다.

대림산업(주)는 석유화학 부문 비

과와 외자 유치를 통해 성공적인 구조 조정을 이루었고, E(Engineering)&C(Construction) 합병의 구조 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영의 혁신을 이루어 냈다.

영광 원자력 5·6호기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대림산업(주)는 경영 원칙인 미래 창조, 인간 존중, 고객 신뢰의 정신에 따라 대림 특유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품질 안전 경영으로 건설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원전 건설 수주를 위하여 영업 확장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내실을 통한 도약의 해

대림산업(주)는 1939년 10월 10일 창업 이래로, 창업 50주년이 되는 1989년에 제2의 창업을 선언하

고 대림 21 전략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룹의 비전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 정하고, 목표를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의 GENEC ON'으로 하여, 세부 실천 사항으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하여 '기술력 고도화/시장 다변화/경영 체질 SOFT화'를 추구하여 왔다.

창업 60주년이 되는 1999년에는 '60년의 힘으로 새로운 세기를'이란 슬로건 아래 기업 체질 개선과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내실있는 기업 운영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코자 대림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이뤄 건설 시공 능력과 엔지니어링 설계 및 조달 능력 등 핵심 역량의 강화를 통해 초우량 건설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 및 지속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트(Risk Management)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영업 체제에 중점을 둔 경영을 추진함은 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 운영 체제와 프로젝트별 경영 체제를 구축하였다.

대림산업(주)는 21세기를 정보화와 다변화의 시대로 보고 이런 경영 환경에서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지식 경영(Knowledge Management)을 통해 60년의 역사의 건설 경험·지식·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여 그 결과를 전임직원들이 같이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왔다.

지식 경영을 바탕으로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공사·자금·회계·노무·인사 등 전분야의 업무 흐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대림은 초고속 정보 사회에 발맞추어 체계화된 지식 창고 및 경영 관리 시스템을 근간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앞선 미래 예측과 신속한 대처로써 세계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원자력 사업

영광 원전 5·6호기 주설비 공사

를 수행중인 대림산업(주)는 이제 성숙된 원전 시공 능력으로 순조롭게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의 현실적인 대안인 원전의 시공자라는 보람으로 신뢰받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전직원 모두가 총체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

당사는 영광 원전 건설 초기에 미국의 S&L(Sargent & Lundy)사로부터 프로젝트 관리/건설 관리/품질 관리 등에 관한 기술 축적했고, 원전 건설 시공성 향상 연구 용역을 한국전력기술(주)와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원전 건설의 시공 기술 능력 향상을 연구해왔다.

이제는 「사업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기반 구축」, 「기술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투자 분석, 공사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자원 관리(인력·자재·장비·협력 업체 등)」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기술(주)가 주관하는 표준 원전 설계 개선 사업에 참여하여 「철근 자동 배근기 사용」, 「PREFABRATION 및 모듈화 공법 적용」, 「RCB 건물 건설 공기 단축」, 「DECK PLATE 공법」 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대림'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해외 원자력발전소 시공 기술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하여 신기술 개발과 시공 기술 능력 향상에 전념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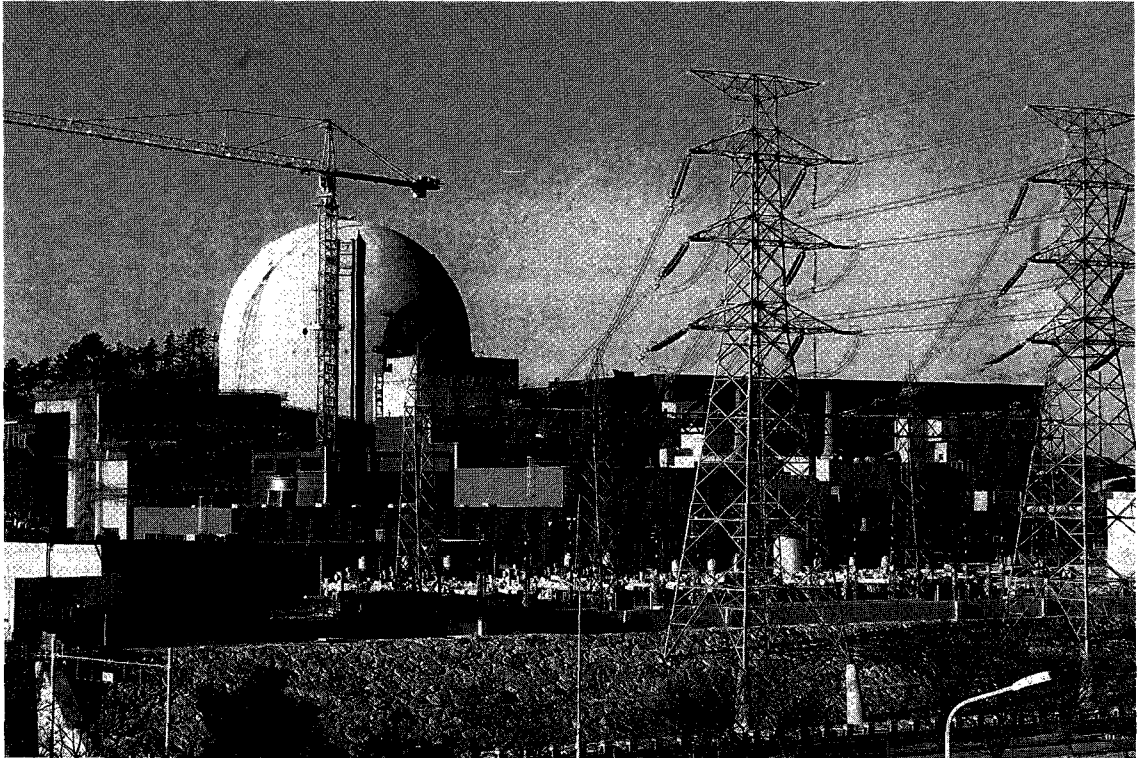
또한 지속적인 직원의 교육과 훈련으로 현장 관리 및 시공 기술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대림 원전 표준 절차서 작성, 원전 사업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를 지원할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원전 건설 시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대림산업(주)는 원전 시공 기술 자립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공사 관리/자원 관리(인력·자재·장비·협력 업체 등)/기술 능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독자적인 공사 수행 능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외 차기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객 신뢰, 인간 존중의 경영

대림산업(주)는 창업 이래 품질을 경영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전사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실이 원전 건설에서 더욱 빛을 발해 원전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사장 직속 기관으로 운영되는 품질보증부는 개별적 감사 기능으로 품질 최우선 경영의 첨병이 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직원 개개인 모두가 품질 관리자라는 마인드로 고객 신뢰는 물론, 대림인이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할 수 있는 품질 달성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광 원전 5·6호기 주설비 공사를 수행중인 대림산업(주)는 이제 성숙된 원전 시공 능력으로 순조롭게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의 현실적인 대안인 원전의 시공자라는 보람으로 신뢰받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전직원 모두가 총체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

이미 ISO 14001의 취득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대림의 인간 존중 경영은 환경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원자력 현장에서 더욱 값진 결실을 맺고 있다.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와 유해성 평가를 통해 환경 오염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지역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생명의 고귀함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경영 철학으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작업자와 직원

이 한가족이라는 공감대 속에 안전을 실천하는 사업장 운영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맺음말

플랜트 건설로 쌓아 올린 명성과 원전 건설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의 안정적인 클린 에너지 공급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대림은 앞으로도 껌질을 깨고 나오는 각오로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 국민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구자적 기업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대림인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대내외 고객과 가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새해에도 모든 원자력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